

5.1절경축 은하수음악회 《장군님식솔》 성대히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음악회를 관람하시었다

위대한 조선로동당의 향도따라 새로운 주제100년대 전군을 다그치고있는 선군조선 근로자들의 영웅적기상이 온 나라에 차넘치는 속에 5.1절경축 은하수음악회 《장군님식솔》이 평양의 인민극장에서 성대히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관람석에 나오시었다.

순간 전체 참가자들은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뜻들이 이어 근로하는 인민이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릴 강성국가의 래일을 펼쳐시며 대고조전군의 최전방에 거연히 서신 위대한 아버지를 우러러 열광의 환호를 울리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5.1절을 맞는 참가자들을 열렬히 축하하시고 조국의 통성변명과 선군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헌신하고있는 온 나라 전체 근로자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내시었다.

애국가의 주악으로 시작된 음악회는 언제나 근로인민대중속에 계시며 평범한 로동자, 농민, 지식인들을 혁명의 주인, 시대의 영웅으로 키워주시고 값높은 삶을 안겨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아버지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이 뚫어번지는 속에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되였다.

새 세기를 창조하는 근로자들의 힘찬 기상이 나라치는 무대에는 혼성6중창과 합창 《승리의 5월》, 합창 《그리움은 끝이 없네》, 남성2중창 《류벌공의 이 영에 끝이 없어라》, 혼성6중창 《처녀의 노래》, 합창 《일터의 휴식》, 여성독창과 방창 《장군님식솔》, 합창 《유류교원무곡》, 여성독창과 합창 《꿈바로》, 남성독창과 방창 《압록강 2천리》, 트럼베트와 색스폰중주 《도시처녀 시집와요》, 관현악 《천리마 달린다》, 여성독창과 합창 《한마음 따르렵니다》, 혼성4중창과 합창 《더 높이 더 빨리》, 합창 《전선에서 만나자》 등 다채로운 종목들이 울렸다.

위대한 수령, 위대한 령도자를 높이 모시고 영웅적투쟁력사와 전통을 빛내여온 사회주의근로자의 끝없는 영예와 긍지를 반영한 곡목들은 관람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일제기 인민이 선생이고 이 세상에 인민대중보다 더 힘있는 존재는 없다시며 근로대중을 조직동원하여



혁명과 건설을 전진시키시고 자신도 근로하는 인민의 깡그리 불태우신 백두산위인들의 사랑의 세계가 펼쳐져 장내는 격정으로 젖어들었다.

음악회가 고조를 이루는 가운데 관람자들도 무대에 초청되였다.

전국근로자들의 노래경연에 여러차례 입선한 삼석구역 장수원협동농장 한영민과 평성합성가족공장 로동자 김영숙의 독창 《뽕따러 가세》, 《종다리》, 다부작에 출연한 《민족과 운명》(로동계급)에 출연하였던 영화배우들의 노래 《구국투쟁가》, 《생이란 무엇인가》, 홍남의 재대군인로동자부부 리종선, 김봉숙의 2중창 《우리는 로동자부부》, 인민의 사랑을 받는 만수대에 출연한 공훈배우 리순홍의 만담과 노래 《탄부의 영에 빛내여가리》, 은하수 독창가수와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당비서 김영숙이 부른 노래 《정다워라 나의 일터여》, 김책공업종합대학 학생들이 출연하는 남성중창과 합창 《돌파하라 최첨단을》은 음악회무대를 이채롭게 장식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아버지장군님께서 심혈을 바쳐 뿌려주신 행복의 씨앗들을 만복의 열매로 바꾸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의 품속에서 보람찬 생활을 누려가는 선군시대 근로자들의 회열과 량만이 무대에 한껏 넘쳐났다.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 함남의 불길드높이 대진군의 북소리를 울리며 총공격해가는 근로자들의 전투적기백과 열정이 차넘치는 종목들을 보면서 관람자들은 대를 이어 태양복을 누리며 사회주의문화의 창조자, 향유자로 삶을 꽃피워가는 우리 근로자들처럼 행복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없음을 가슴뿌듯이 절감하였다.

위대한 령도자의 두리에 하나의 전우로 굳게 뭉친 근로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이 있고 조선로동당의 위업을 순결한 량심과 의리로 받들어나가는 총정의 대부대가 잇기에 강성부흥의 최후승리는 확정적이라는 철리를 힘있게 파시한 음악회는 관람자들의 심금을 세차게 격동시켰다.

음악회가 끝나자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를 우러러 또다시 터치는 열광의 환호로 하여 장내는 세차게 뚫어번지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환호하는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에게 답례를 보내시고 공연성공을 축하하시었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5.1절에 즈음하여 대관유리공장과 허철용이 사업하는 기계공장을 찾으시고 로동계급들을 축하하시었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5.1절에 즈음하여 대관유리공장과 허철용이 사업하는 기계공장을 찾으시고 로동계급들을 축하하시었다.

전세계근로자들의 국제적명절인 5.1절을 기념하는 뜻깊은 날에 꿈결에도 그리던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자기들의 일터에 모시는 크나큰 영광과 행복을 지닌 대관유리공장과 허철용이 사업하는 기계공장의 로동계급들을 끝없는 감격과 격정에 휩싸여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대관유리공장을 현지지도하시었다.

공장에서 도착하신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일군들과 인사를 나누신 다음 전세계근로자들의 전투적위력과 혁명적단결을 시위하는 국제적명절을 뜻깊게 기념하고있는 공장로동계급들을 열렬히 축하하시고 그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내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먼저 공장에서 개발한 현대적인 광학측정기계를 보여주시었다.

광학측정기계의 작용원리와 성능에 대해 일일이 알아보고서 공장의 로동계급들이 불타는 열정과 창조적지혜를 발휘하여 현대적인 광학측정기계를 개발하고 그 리용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즐기차게 밀고 나가고있는데 대해 평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이어

설계실, 자동화실, 전자도서실, 제품검본실을 비롯한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공장의 기술발전현황과 생산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었다.

하나의 과학연구기관을 방불케 하는 전자종합기술방사소에 전개되어있는 여러 실들을 돌아보시면서 공장로동계급들이 제품설계로부터 가공, 조립에 이르는 모든 생산공정들을 현대화, 과학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한데 대해 기쁨을 표시하시었다.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려온 공장로동계급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최근년간 공장의 CNC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될수 있었으며 그 결과 유리제품 및 광학기재생산량이 늘어나고 제품의 질이 제고될수 있었다고 만족해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현대적인 유리제품 및 광학기재들에 대한 수요가 날로 높아가고있다고 하시면서 공장관리운영과 생산에서 지침으로 되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대관유리공장의 로동계급들이 증산투쟁의 불길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며 조선로동당의 최첨단돌파사상을 높이 받들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광범히 벌려 질 좋고 현대적인 유리제품 및 광학기재를 더 많이 생산해내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허철용이 사업하는 기계공장을 현지지도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총조립직장과 제판직장을 비롯한 여러 생산공정들을 돌아보시면서 생산정형과 기계들의 구조와 성능, 기술적특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었다.

공장에서 최첨단돌파전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강성국가건설에 이바지할수 있는 훌륭한 기계들을 만들어내고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기계제품들을 보신 다음 공장앞에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이어 공장에 새로 일떠선 강성원을 돌아보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지난 1월 22일 현지지도의 그 바쁘신 속에서 도 공장에서 건설하고있던 강성원을 돌아보시고 인민군대에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00돐까지 최상의 수준에서 잘 꾸려줄데 대한 과업을 주시었다.

군인건설자들은 혁명적군인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건설현장에 달려나온 때로부터 불과 70여일동안에 팔조만 서있던 강성원의 내부, 외부건축공사와 지붕공사, 전기, 급배수, 환기, 난방, 설비조립공사를 비롯한 건설공사를 완전히 마무리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빛나게 수행하였다는 지휘관의 보고를 받으신 다음 강성원의 여러곳을 돌아보시었다.

공장구내에 번듯하게 일떠선 강성원의

외부를 만족하게 바라보시면서 눈길을 걸으시며 이곳을 찾으시었던 그날을 회고하시었다.

남자목욕탕의 한증간에 몸소 들어가서 여 온도도 가능해보시고 물은 잘 나오는가도 물어주시었으며 독탕, 사진실에 들리시여서는 잘 꾸렸다고 기뻐하시었다.

수영장과 물놀이장에 들리신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수영과 물놀이를 하고있는 로동자들의 모습을 즐겁게 바라보시며 그들이 훌륭한 곳에서 문화휴식을 마음껏 할수 있게 되였다고 못내 만족해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강성원건설에 동원된 군부대가 올해를 인민을 위한 해로 정해준 당의 의도에 맞게 공장로동자들을 위해 큰일을 했다고 치하하시면서 인민군대는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의 선두에 서야 한다고 지적하시었다.

식사실에 들리시여 시공정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서 마음에 든다고 하시였으며 주방간에 그쫘려 갖추어져있는 가공실비들과 집기류들을 인민군대에서 일식으로 마련해주었다는 보고도 기쁨속에 들어주시었다.

리발실에 들리신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잘 꾸렸다고, 리발을 하고싶은 생각이 든다고 하시면서 저저마다 리발을 헤드리겠다는 리발사들의 격정에 젖은 청에 고맙다고 말씀하시었다.

제육관의 소리울림상태도 알아보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 최고령도자께서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지휘부를 시찰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지휘부를 시찰하시였다.

지휘부에는 최고사령관기와 공화국기가 세차게 휘날리고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를 비롯한 인민군장병들의 피끓는 맹세가 담겨진 구호들이 나뉘어 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영접 보고를 받으신 다음 지휘관들의 안내를 받으시며 혁명사적교양실과 연혁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어버이장군님께서 주체적항공무력건설에 바쳐오신 로고와 심혈이 그대로 어리여있는 사적자료들을 보시고 수령님과 장군님의 탁월한 군사사상과 현명한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영웅적조선인민군 항공무력이 태어나고 필승불패의 무적의 대오로 자라날수 있었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께서는 헬남전쟁에 참가하여 공중우세를 뽐내며 돌아치던 미제의 비행기들을 타격소멸하고 조선인민군 비행대의 슬기와 용맹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세상을 놀래운 부대 비행사들의 사진앞에서 결음을 멈추시였다.

어버이장군님께서 헬남전쟁에서 희생된 비행사들을 한시도 잊지 않으시다 이국 땅에 묻혀있는 그들을 조국에 데려다 인민군영웅렬사묘에 안치하도록 하시는데 대해 뜨겁게 회고하시였다.

그러시면서 헬남전쟁참가자들에게 조국에 돌아와 사망한 영웅비행사들도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인민군영웅렬사묘에 안치하게 하심으로써 수십년이 지난 오늘에도 그들의 위훈이 조국청사에 길이 빛나게 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께서는 전쟁참가자들이며 영웅들인 박종식과 홍성룡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고 박종식은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영웅강사로 임명해주시였으며 홍성룡은 애국렬사릉에 안치하도록 하시는 하늘같은 사랑과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이어 지휘소와 작전연구실들을 돌아보시면서 부대의 입무수행정형과 전투군수행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의 주체전법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현대전에 대처할수 있는 높은 작전지휘능력과 전투능력을 소유함으로써 조국의 하늘을 철용성같이 지키고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그들의 투쟁성과를 높이 평가하시였다.

지휘소의 정황기록관에 한자한자 《최고사령관동지, 정말 뵙고싶었습니다》라는 글발을 정리 쓰시고 격정으로 흐느끼는 병사들의 눈물젖은 모습을 바라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께서는 그들을 몸가끼이로 불러주시였다.

《최고사령관동지!》 목메어 부르며 달려와 동동 매달리는 병사들을 한푼에 꼭껴안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께서는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께서는 작전연구실의 매 방들을 잠시간에 걸쳐 돌아보시면서 조선로동당의 주체적인 군사전략철술사상과 전법을 깊이 연구하고 철저히 구현할수 있게 작전연구실들을 잘 꾸리는데 대하여 치하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께서는 지휘소와 작전연구실들을 정말 잘 꾸렸다고, 어버이장군님을 모시고 왔더라면 얼마나 기뻐하시였겠는가고 젓은 목소리로 말씀하시였다.

반항공무력을 더욱 강화발전시키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군인회관, 병사원, 지휘부식당을 비롯한 문화교양시설들과 후방경리시설들을 돌아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1970년 2월 8일에 다녀가신 군인회관이 모란봉극장같다고, 정말 멋있다고 치하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께서는 공훈국가합창단을 데리고 와 비행사들과 군인가족들과 함께 공연을 보았으면 그들이 무척 좋아했을것이라고 하시며 못내 아쉬워하시였다.

전자도서관을 돌아보시면서는 부대에 무엇을 마련해줄것인가 알아보려고 왔는데 자체로 번듯하게 다 꾸려놓았다고 하시면서 부대정치위원이 몸이 불편해한다는 보고를 받고 걱정했는데 지휘관과 합심하여 많은 일을 해놓았다고 하시며 정어린 눈길로 바라보시였다.

병사원의 식사실과 취사장을 구체적으로 돌아보신 최고령도자께서는 모든것이 마음에 든다고, 흠잡을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시며 이 부대는 진군적으로 제일 모범부대라는 최상의 평가를 주시였다.

울먹이며 서있는 취사원들을 보시고 수고한다고 정담아 불러주신 최고령도자께서는 그들과도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에서 자체로 연구개발한 전투기술기체들을 보여주시였다.

전투기술기체들의 성능과 도입실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들으신 최고령도자께서는 싸움준비완성을 위해 머리를 쓰고 열정을 쏟아붓는 군인들만이 내놓을수 있는 훌륭한 일이라고, 연구개발에 참가한 군인들에게 최고사령관이 높이 평가했다는것을 전해달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이곳 부대사령관이 일육십이 대단하다고 치하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께서는 오늘 부대를 돌아보니 싸움준비를 첫자리에 놓고 지휘관들이 일을 잘하고있는것이 알린다고 하시면서 해놓은것이 많으니 최고사령관에게 자랑하고싶어하는것도 많다고, 부대를 시찰한 보람이 있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최고령도자께서는 철단을 돌파할데 대한 조선로동당의 사상을 받들고 모든 군사정치사업을 높은 수준에서 설계하고 진행하면서 끊임없이 혁신하고 비약하는 부대 일군들의 진취적인 투쟁기풍을 다시금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부대장병들이 만단의 전투동원태세에서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전진하는 사회주의 조국을 총대로 굳건히 담보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 최고령도자께서 조선인민군 제655연합부대의 종합전술연습을 지도하시고 조선인민군 제26차 군사과학기술전람회장을 돌아보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조선인민군제655연합부대의 종합전술연습을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훈련장에 도착하시자 참관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식대로, 어버이장군님식대로 적들이 미처 정진차릴새없이 불달린 화약과도 같이 련속공격, 련속승리의 불폭풍을 일으키시며 사회주의조국을 굳건히 수호해주는 회세의 천총명장 경애하는 최고령도자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께서는 조선인민군 종합모방으로부터 영접보고를 받으신 다음 감시대에 오르시여 훈련진행계획과 연습부대들의 배치상태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였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훈련을 시작할데 대한 명령을 주시였다.

순간 쌓이고쌓인 분노의 분출인듯 시뻘건 불줄기를 련속 내뿜는 위력한 화력라격 수단들의 우뢰같은 폭음과 포성이 하늘땅을 진감하였다.

영웅한 비행대들이 조국의 푸른 하늘에 멸적의 비행운을 새기며 목표들을 련이어 타격하였다.

땅코, 장갑차들이 지축을 울리며 《적진》으로 돌입하였으며 일당백전투원들이 《적》초소들을 불시에 타고앉았다.

일제사격의 장쾌한 포성이 노호하고 포연자욱한 《적진》은 샅시에 불마당이 되였다.

훈련을 결속하며 조선인민군 포병들이 쏘아올린 추포탄이 전승의 추포인양 조국의 푸른 하늘가에 터졌다.

훈련이 끝나자 참관자들이 러쳐올리는 《만세!》의 환호성이 천지를 진감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께서는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답례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주체전법을 구현한 훈련이 성과적으로 진행된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고 인민군대의 싸움준비를 더욱 빈틈없이 갖추는데서 나오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인민군장병들이 조국의 안전과 인민의 행복을 총대로 걸걸히 수호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조선인민군 주요지휘성원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작전지휘

성원들, 조선인민군 대련합부대 지휘성원들, 동행한 일군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조선인민군 제26차 군사과학기술전람회장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먼저 개건현대화된 조선인민군 과학기술전람회관 건물정형을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께서는 이어 일군들의 안내를 받으시며 1층, 2층, 야외전시장들을 잠시간에 걸쳐 돌아보시면서 인민군대안의 과학기술사업정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시였다.

인민군군인들과 과학자, 기술자, 연구사들이 집체적지혜와 창의창발성을 발휘하여 인민군대의 싸움준비에 절실히 필요한 가치있는 수많은 발명품과 창안품을 연구개발하여 이번 전람회에 출품한것은 아주 좋은 일이라고 치하하시였다.

김일성군사종합대학과 김일성정치대학, 김철주포병종합군관학교, 조선인민군 제630대련합부대를 비롯한 여러 단위들에서 출품한 발명품, 창안품들은 착상이 좋고 실시 싸움준비에 필요한것들이라고 하시면서 연구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현실에서

은을 내게 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하시였다.

조선인민군 공군 제1017군부대에서 자체의 힘과 기술로 개발하여 적극 도입하고 있는 창안품을 보시면서는 우리의 기술로 잘 만들었다고, 공군에서 연구사업을 잘하고있다고 치하하시였으며 해설자가 설명을 잘한데 대해서도 평가하시였다.

전시청각기관손상자와 선천성 및 후천성난청, 약물중독성난청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켜 세계적인 첨단기술성공을 이룩하고 7살 난 어린이의 선천성난청을 완전히 고쳐준 조선인민군 제564군부대 연구집단의 소행에 대한 보고도 주의깊게 들어주시고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김일성군사종합대학에서 연구제작한 새로운 형의 발전기를 보시고 쓸모있게 잘 만들었다고 기뻐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제3848군부대에서 출품한 2중지레대의 원리를 리용하여 임의의 장소에서 각종 형태의 첩판을 수동으로 쉽게 절단할수 있게 만든 금속관수동절단기를 보시고서는 가치있는 창안품이라고 평가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제630대련합부대관하 구분대의 사관 차광철이 만든 기체의 자동상태를 료해하신 최고령도자께서는 실내전시관에서 보여주신 그가 만든 발명품에 대

해서도 평가하시며 중학교를 졸업한 젊은 동무가 착상을 잘하고 포부도 크다고 치하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전람회 출품된 발명품, 창안품들을 보니 인민군대에서 최첨단을 돌파할데 대한 당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싸움준비와 관련한 과학기술적문제를 풀기 위해 애쓰고있는것이 알린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께서는 인민군대안의 과학자, 기술자, 연구사, 군인들이 지난 기간 불라는 혁명적열정과 창조적재능을 발휘하여 인민군대의 싸움준비강화와 군인생활,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되는 과학연구사업을 줄기차게 벌려왔다고 하시면서 그들이 이룩한 자랑찬 성과들을 거듭 높이 치하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인민군대의 과학기술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더욱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침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조선인민군 제26차 군사과학기술전람회가 인민군대의 과학기술발전을 추동하고 싸움준비와 군인생활,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기여하는 중요한 계기로 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 최고령도자께서 룡라인민유원지개발사업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룡라인민유원지 개발사업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먼저 룡라공동어관건설장소를 찾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공동어관을 비롯 외부를 돌아보시면서 건설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공동어관은 어버이장군님께서 생의 마지막시기에도 특별히 관심하시던 대상이라고 하시면서 건설을 최상의 질적수준에서 완공하는데서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이어 룡라물놀이장건설장을 찾으시였다.

사를 기본적으로 끝내는 자랑찬 위훈을 세운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

공동어관과 보조수조, 과학기술보급실 등 공동어관건설현장을 돌아보시면서 우리 인민들에게 또 하나의 현대적이고 특색있는 문화정서거점을 안겨줄수 있게 되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건설에 참가한 군부대에 힘있는 부대라는 칭호를 안겨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공동어관은 어버이장군님께서 생의 마지막시기에도 특별히 관심하시던 대상이라고 하시면서 건설을 최상의 질적수준에서 완공하는데서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이어 룡라물놀이장건설장을 찾으시였다.

총중이 높은 계단을 오르시여 물미끼럼대의 정점에 이르신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한평생 인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어버이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군인건설자들이 새 세기의 요구에 맞는 현대적인 물놀이장건설을 마감단계에서 다그치고있는데 대해 높이 치하하시였다.

전승절을 맞으며 완공될 장소에서 마음껏 물놀이를 하면서 웃고 떠들 청소년 학생들과 근로자들의 행복한 모습을 그려보시며 기쁨을 금치 못하시였다.

물놀이장주변에 조약대와 여러가지 봉사시설들을 더 갖추어주어 룡라물놀이장을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없는 인민의 문화휴식터로 꾸려주자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계속하여 룡라유회장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1구역 유회장과 2구역 유회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건설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두개의 구역에 갈라진 유회장을 서로 오갈수 있도록 통로를 새로 설정해주며 청량음료점을 더 멋있고 편리하게 건설할데 대하여 다짐하게 이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이날 룡라인민유원지의 큰물파해를 막기 위한 룡라도호안공사정형도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룡라인민유원지개발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면서 교통문제를 원만히 풀기 위한 방도,

대동강을 종합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대책, 불장식에서 나서는 문제 등 룡라도를 인민의 유원지로 전변시키는데서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룡라인민유원지는 우리 당이 인민들에게 안겨주는 선물이라고 하시면서 뜻깊은 올해 전승절까지 마무리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지금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온 나라에 룡라인민유원지와 같이 세인을 경탄시키는 대기념비적창조물들이 련이어 일떠서고있다고 하시면서 우리 인민의 사상감정, 미적지향과 요구에 맞는 건축물들을 더 많이 건설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 최고령도자께서

조선인민군창건 80돐경축 은하수음악회 《잊지 말자 혁명에 다진 그 맹세》, 조선인민군교예단 대형요술공연 《세월의 끝까지》를 관람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평양시민들과 함께 인민극장에서 조선인민군창건 80돐 경축 은하수음악회 《잊지 말자 혁명에 다진 그 맹세》를 관람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극장관람석에 나오시자 관람자들은 무비의 담력과 배짱, 령활무쌍한 령군술과 승고한 덕망을 지니시고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해나가는 걸출한 선군령장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온 나라 전체 군대와 인민들의 다함없는 호모의 정을 담아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울리는 평양시민들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였다.

에국가의 주악으로 시작된 음악회무대에는 서곡 《잊지 말자 혁명에 다진 그

맹세》, 남성2중창과 합창 《한별을 지켜가리라》, 혼성3중창과 남성방창 《기쁨신고 달리는 말발구》, 관현악과 합창 불후의 고전적명작 《반일전가》, 녀성독창과 녀성방창 《나는 알았네》, 합창 《해안포병의 노래》, 혼성4중창과 합창 《김일성원수께 드리는 노래》, 녀성

5중창 《수령님 높이 모신 내 조국 노래하네》, 혼성2중창과 방창 《최명감네 평양구경》, 민족기악2중주와 녀성독창 《비단 짜는 처녀》, 《녕변의 비단치녀》, 합창 《신고산타령》, 녀성독창과 방창 《인민 사랑의 노래》, 어린이들이 출연하는 4중창 《우리는 행복해요》, 2중창 《만경봉의 무지개》, 피아노와 노래 《아버지원수님께 영광드려요》, 중창 《장군님의 군대가 되자》, 관현악과 합창 《혁명을 위하여》, 녀성독창 《수령님 사랑 안고 오셨네》, 합창 《우리는 총창을 더욱 굳게 잡으리》, 트럼베트3중주 《하

늘의 밤에 우리가 되리》, 남성6중창 《조

국의 바다지켜 영생하리라》, 합창 《병사들의 가슴에 남해가 설레이네》, 《수령이시여 명령만 내리시라》, 녀성독창 《당의 기치따라》, 실화와 관현악 《우리의 총대는 말한다》, 합창 《나가자 조선아》 등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다.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선군조선의 성스러운 력사와 밝은 앞날을 장중하고도 풍만한 정서가 넘치는 예술적화풍으로 펼쳐보인 음악회는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로 끝났다.

음악회가 끝나자 또다시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우러러 리치는 《만세!》의 환호로 하여 장내는 뜨겁게 끓어번지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에게 답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은하수관현악단의 예술인들이 위대한 수령님과 아버지장군님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사무치는 그리움, 조선의 불굴의 신념과 의지가 맥박치는 훌륭한 공연을 진행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은하수관현악단은 아버지장군님께서 손때묻혀 키우신 예술단체라고 하시면서 역시 은하수라는 최상의 평가를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은하수관현악단의 예술인들이 혁명적인 예술 활동을 과감히 벌림으로써 우리 군대와 인민을 선군혁명총진군에 더욱 힘있게 불리우시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평양시민들과 함께 조선인민군교예단 대형요술공연 《세월의 끝까지》를 관람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관람석에 나오시자 전체 관람자들은 우렁찬 《만

세!》의 환호를 울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공연무대에는 환상요술과 영화요술종목들이 올랐다.

출연자들은 시공간속에서 존재하는 사물에 대한 시각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기교들을 펼쳐보였다.

공연이 끝나자 또다시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울려 퍼지고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우러러 리치는 호모의 열정으로 하여 장내는 불도가니마냥 끓어번지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울리는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에게 답례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사람들을 정치사상적으로, 문화정서적으로 교양하는 힘있는 수단인 주체교예예술을 더욱 발전시키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본사기자

일심단결로 위용떨치는 조국

위대한 김일성주석탄생 100돐 경축 열병식장에서 울린 위대한 김정은최고령도자의 힘있는 연설에 접한 천만군민은 일심단결의 힘으로 뜻깊은 올해에 강성부흥의 전성기를 펼쳐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결정적전환을 가져올 결의에 충만되어 있다.

미국이 기고만장하여 지구우에 몰아오는 군사적위협은 광풍도 조국땅에 차넘치는 일심단결의 기상앞에서는 쪽을 못쓴다. 리명박취재개편당이 아무리 울라닥질해도 명도자와 천만군민이 일심단결된 무쇠덩이를 쏠지 못한다.

지금으로부터 열두해 전 8월 어느날 위대한 김정은최고령도자는 남조선의 언론사대표단을 만나주신 자리에서 우리 힘의 원천으로는 두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일심단결이고 두번째가 군력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일심단결과 군력, 이것은 세계의 그 어느 나라도 가질수 없는 조국의 위력이다. 몇해전 어느 한 나라의 이를 있는 군사평론가는 이렇게 말하였다.

《만약 조선에서 전쟁을 일으킨다면 조선인민군이라는 세련된 정규군과의 싸움만이 아니라 굳게 단합된 북조선주민모두를 상대로 싸워야 한다. 이것이 북조선의 위력이다.》

위대한 김정은장군님의 두리에 철석같이 뭉친 천만군민의 일심단결이 세계를 놀래운 일이 얼마나 많았는가.

주체82(1993)년 3월, 준전시상태를 선포하는 최고사령관

명령이 하달되자 평양시 10여만 군중대회를 비롯한 각 도 군중대회가 진행되고 전국적으로 150여만 청년학생들이 조선인민군입대와 복대를 탐원해나섰다.

주체92(2003)년 1월 핵무기 전과방비조약에서 탈퇴할때 대한 공화국정부성명이 나오자마자 그것을 지지하여 평양의 김일성광장을 비롯한 여러 광장과 곳곳마다에는 삼시에 100여만중이 모여왔으며 각 도에서도 련이어 군중대회가 진행되었다.

군중대회들에서 울려나온 웨침은 지구를 들쭉대놓는듯 하였다.

백두의 선군령장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천만군민의 힘은 미국의 핵무기보다 더 위력하다.

우리 인민은 하나로 뭉친 심장, 폭발로 침략자들을 요정내고 조국을 수호할것이다! 세상사람들은 민족해방의 국상의 나날 명도자와 인민이 승고한 믿음과 사랑, 끝을수 없는 혈연의 정으로 굳게 뭉친 공화국의 일심단결을 더욱 똑똑히 보았다.

비에의 눈물이 바다를 이루던 그 나날 조의식장을 찾는 인민들에게 사랑가루더운물, 산과 골과 콩우유가루, 빵과 과자도 조계들에게 봉사하도록 하시였고 사람들이 추위에 떨세라 조의식장들에 가설물도 꾸며 몸을 덜힐수 있게 하시고 수만개에 달하는 발열불임피가 조계들에게 둘러지도록 하신 위대한 김정은최고령도자.

인민들에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서거하시였다가

장 비통한 소식을 알려야 하는 그 시각에도 장군님께서 생전에 그처럼 아끼고 사랑하신 인민들에게 공감할 물고기수중대회를 세우신 그이시였다.

그이께서는 새해 정월초하루날에도 인민군장병들을 찾으시여 병실의 온도도 가늠해보시고 식당에 둘러서시여는 병사들을 잘 먹이도록 하여야 한다고 거듭 당부하시였다.

그이의 천만군민에 대한 사랑과 믿음은 날이 가고 해가 바뀔수록 더 두터워만진다.

하기에 천만군민은 사랑과 정으로 나라와 민족의 밝은 앞날을 열어나가는 위대한 김정은최고령도자를 위대한 아버지로 부르고 또 따른다.

우리의 최고존엄을 중상모독하는 남조선의 리명박역적패당의 망동이 련발하고있는 때에 이 땅의 군대와 인민은 최고령도자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쳤다. 리명박패당을 매장해버리기 위한 평양시군민대회와 각 도 군민대회 진행, 무려 194만여명의 청년들이 복수성전을 다짐하며 조선인민군 입대, 복대를 탐원, 여기저기에서 울려나오는 분노의 함성...

이 행성에 그 어떤 강한 무기가 있다 해도 위대한 김정은최고령도자와 천만군민이 절대의 믿음과 사랑으로 한고 사람들이 추위에 떨세라 조의식장들에 가설물도 꾸며 몸을 덜힐수 있게 하시고 수만개에 달하는 발열불임피가 조계들에게 둘러지도록 하신 위대한 김정은최고령도자.

인민들에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서거하시였다가

본사기자 명금 룡

민족 대단합의 메아리

오늘은 민족재생의 은인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푸송(무송) 현 동강(동강)에서 조국광복회를 창건하신 때로부터 76돐이 되는 뜻깊은 날이다.

동강의 밀림속에 메아리치던 《조국광복회10대강령》의 구절이 오늘도 7천만겨레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준다.

돈 있는 사람은 돈을 내고 식량이 있는 사람은 식량을 내고 기능과 지혜가 있는 사람은 기능과 지혜를 바치며 2천만민중이 한데 뭉쳐 행동으로 반일조국광복성전에 참가한다면 조선의 독립은 반드시 성취될것이라고 확신있게 웨치신 위대한 김일성주석.

그이께서는 공산주의자, 민족주의자, 민족자본가, 랑시적인 지주와 종교인, 지식인 등 나라를 사랑하고 일체를 반대하는 민족의 모든 성원들을 반일항전에 불러주시였다.

주체적이며 애국애족적인 이 강령은 민족구성원 각계각층의 지지를 받았다. 결과 조국광복회는 짧은 시일내에 수십만의 회원과 가히 국내는 물론 해외의 광활한 지역에 조직망을 두는 범민족적조직으로 확대발전되게 되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두리에 하나로 굳게 뭉쳤기에 조선인족은 무장한 강도 일체를 라도하고 조국해방을 이룩할수 있었다.

그러나 그때로부터 우리 민족은 의세에 의해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여야 할 절박한 역사적과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조국통일보다 더 중요한 민족의 대의, 최대의 민족적숙원인 없었다.

조국통일은 의세에 의해 갈라진 조국, 갈라진 민족을 하나로 합치고 끓여진 단일민족의 혈통을 다시 이어나가는 대성업이다.

하기에 경애하는 김정은 최고령도자께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 탄생 100돐 경축 열병식에서의 력사적인 일조국광복성전에 참가한다면 조선의 독립은 반드시 성취될것이라고 확신있게 웨치신 위대한 김일성주석.

그이께서는 공산주의자, 민족주의자, 민족자본가, 랑시적인 지주와 종교인, 지식인 등 나라를 사랑하고 일체를 반대하는 민족의 모든 성원들을 반일항전에 불러주시였다.

주체적이며 애국애족적인 이 강령은 민족구성원 각계각층의 지지를 받았다. 결과 조국광복회는 짧은 시일내에 수십만의 회원과 가히 국내는 물론 해외의 광활한 지역에 조직망을 두는 범민족적조직으로 확대발전되게 되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두리에 하나로 굳게 뭉쳤기에 조선인족은 무장한 강도 일체를 라도하고 조국해방을 이룩할수 있었다. 그러나 그때로부터 우리 민족은 의세에 의해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여야 할 절박한 역사적과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조국통일보다 더 중요한 민족의 대의, 최대의 민족적숙원인 없었다. 조국통일은 의세에 의해 갈라진 조국, 갈라진 민족을 하나로 합치고 끓여진 단일민족의 혈통을 다시 이어나가는 대성업이다. 하기에 경애하는 김정은 최고령도자께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 탄생 100돐 경축 열병식에서의 력사적인 일조국광복성전에 참가한다면 조선의 독립은 반드시 성취될것이라고 확신있게 웨치신 위대한 김일성주석.

그이께서는 공산주의자, 민족주의자, 민족자본가, 랑시적인 지주와 종교인, 지식인 등 나라를 사랑하고 일체를 반대하는 민족의 모든 성원들을 반일항전에 불러주시였다.

주체적이며 애국애족적인 이 강령은 민족구성원 각계각층의 지지를 받았다. 결과 조국광복회는 짧은 시일내에 수십만의 회원과 가히 국내는 물론 해외의 광활한 지역에 조직망을 두는 범민족적조직으로 확대발전되게 되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두리에 하나로 굳게 뭉쳤기에 조선인족은 무장한 강도 일체를 라도하고 조국해방을 이룩할수 있었다. 그러나 그때로부터 우리 민족은 의세에 의해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여야 할 절박한 역사적과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조국통일보다 더 중요한 민족의 대의, 최대의 민족적숙원인 없었다. 조국통일은 의세에 의해 갈라진 조국, 갈라진 민족을 하나로 합치고 끓여진 단일민족의 혈통을 다시 이어나가는 대성업이다.

하기에 경애하는 김정은 최고령도자께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 탄생 100돐 경축 열병식에서의 력사적인 일조국광복성전에 참가한다면 조선의 독립은 반드시 성취될것이라고 확신있게 웨치신 위대한 김일성주석.

그이께서는 공산주의자, 민족주의자, 민족자본가, 랑시적인 지주와 종교인, 지식인 등 나라를 사랑하고 일체를 반대하는 민족의 모든 성원들을 반일항전에 불러주시였다.

한 유일한 출로이다.

은 겨레를 조국통일로 부르는데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의 힘찬 호소에 화답하여 애국애족의 일념을 지닌 민족성원모두가 일어났다.

통일의 원수들이 제아무리 발악해도 이 도도한 흐름은 절대로 막을수 없다.

남조선의 한 언론인은 《자주민주》에 실은 자기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사실 지난해 12월의 대국상 이후 북의 앞날을 두고 세계가 적지 않은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반북적대세력들은 《글로벌》을 운운하면서 북에서 그 어떤 이상기류가 발생하지 않느냐 하여 어리석은 꿈을 꾸기도 했다. 지금도 일부 서방언론들은 《체제불안정》이니 심지어 《북붕괴》이니 하면서 북의 영성에 먹칠을 해보려고 외곡하고 중상모략하고 있으나 나는 이번 방문에서도 그것은 주장들이기우에 지나지 않는 단지 망설이며 망상임을 똑똑히 확인할수 있었다.》

민족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넓은 도량을 지니신 위대한 아버지를 대대로 모시어 조국통일의 앞길을 밝고 창창하다.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두리에 굳게 뭉쳐 나라의 해방을 이룩했던것처럼 은 겨레는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와 팔을 끼고 어깨를 걸고 조국통일위업에 모든 힘을 다 바쳐갈것이다.

본사기자 리경 율

4월 남북련석회의 나날에

최선을 다하라

련석회의준비가 한창이던 어느날이었다. 회의 성사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계시는 아버지수령님께서는 그날 늦은밤 남북대표들에게 띄울 초대장을 주의깊게 보시였다. 그이께서는 초대장을 만드는 사람들을 일별하시며 이 초대장은 남반부의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에게 처음으

로 보내는 공식초대장이자 그런것만큼 우리의 성의가 다 반영되어야 한다고 하시며 초대장을 만드는데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그러시기는 초대장에 표기되는 글자의 배열과 간격, 글자획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보살펴주시였다. 회

의에 참석하라는 단순한 초청장이 아니였기때문이다. 북으로 한자한자 정성담아 쓴 글말들마다에 애국의 뜻이 흘러넘치는 초대장은 드디어 남조선 각계 대표들에게 전달되자마자 큰 파문을 일으켰다. 북에서 날아온 초청장에 반렬의 위기에 처한 민족의 운명문제가 무겁게 실려있었던것이다.

짧은 휴식 시간에도

련석회의가 계속되던 어느날이었다. 그날 북과 남의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은 자기들을 회의에 초청해주신 수령님께 감사를 드렸고 그이께서 제시하신 방침 실현에 모든 힘을 다할 결의들도 피력하였다. 휴식시간이었다. 수령님께서 짧은 휴식 시간이나마 남북선대표들과 함께 보내시기 위하여 모란봉극장 앞마당으로 나오시였다.

경계수려한 모란봉의 경치에 심취된 남북선대표들을 보신 수령님께서는 우리는 앞으로 모란봉을 더 잘 꾸려 근로인민들이 언제나 모란봉에 와서 마음껏 휴식하게 하려고 한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오늘 우리 인민의 건국열의는 매우 높으며 또 우리 나라의 그 어디나 자연부원이 많으므로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고 전체 조선인민의 무궁무진한

힘을 적극 동원하여 풍부한 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리용한다면 이 땅에 반드시 부강하고 문명한 새 조선을 일떠세울수 있을것이라고 하시였다. 그이의 웅대한 새 조국건설구상이 담긴 말씀은 남녘의 동포들에게 애국의 넋과 새 조선의 미래에 대한 크나큰 신심과 희망을 가슴가득히 안겨주었다.

본사기자



이역만리에 곱이친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 (2)

*** 까자흐스탄과 기르기즈스탄에서 사는 동포들을 찾아서 ***

파슈케르를 떠난 비행기는 까자흐스탄 남동부의 광활한 지역에 펼쳐진 자일리알라파우산을 넘어 2시간만에 우리를 알마티비행장에 내려놓았다.

지금으로부터 십수세기 전 모름지기 우리 나라의 불교학자였던 혜초가 지나왔을지도 모를 이 땅, 오늘은 수많은 조선동포들이 살고있는 알마티에 드디어 당도한것이다.

역사관에서 우리는 마중나온 올해 64살의 강순호 까자흐스탄고통련위원장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다.

예까지 오게 된 사연을 듣고난 강위원장은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데 식사부탁하자며 우리를 식당으로 안내했다. 《알마티에 오면 의례 이국 음식을 대접해줬는데 신선들이 조국을 떠난지도 퍼그나 된다니 조선음식을 대접할까 합니다.》 하는 그의 말에 슬그머니 손가락을 짚어보니 정말 밥을 먹어본지도 한주일은 실히 지난것 같았다.

강위원장이 조선말로 《밥, 단고기장, 두부장, 김치...》하고 음식이름을 부를 때마다 눈동자가 파란 접대원처럼 《다(에), 다》하며 알았다듯 머리를 끄덕이고 나가는것이였다.

일행중 한명이 《아니! 어떻게 우리 말을?》 하니 그는 이 나라에도 조선사람들의 식생활이 많이 퍼져 우리 음식은 이렇게 조선말로 칭해야 통한다고 말하는것이였다.

《조국손님들도 이 나라말은 몰라도 우리 음식이름만 잊지 않았으면 좋지는 않을 거지.》 하는 강위원장의 말에 우리는 한껏 웃으며 단고기장밥을 맛나게 먹었다.

식사를 마치고 일정이 긴박한만큼 이제부터 《강행군》을 해보자는 그의 말에 우리는 또 한번 크게 웃으며 차에 올랐다.

알마티시내에까지 자락을 내리드러운 해발 5000m의 내의 메데우산은 사철 눈이 녹지 않아 겨울철체육시설들이 많은 곳이다.

그 산을 옆에 끼고 1시간가량 달리니 전원과 함께 자그마한 부락인 싸이마싸이촌이 나왔다.

알마티란 까자흐스탄말로 사파의 고장이라는 뜻이라더니 어디 가나 사파나무가 많이 보였다.

올해 74살의 김 보리스로인이 문밖에까지 나와 우리를 따뜻이 맞아주었다.

마당에 들어서니 울라리 한쪽벽을 따라 도끼로 켜 나무들이 가지런히 쌓여있고 사파나무밑에서는 스무나론 마리쯤 되는 닭들이 한창 모이를 쫓고있었다. 안성맞춤한 돌들로 네귀를 맞춰 쌓은 부뚜막에서 쇠가마가 흰김을 토해내는 모양이 마치 조국의 한 농가를 보는듯 했다.

방에서는 여러명의 동포들이 조국의 출판물들인 신문 《통일신보》와 잡지 《금수강산》, 《통일화보》 등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고있는중이였다.

그리고보니 김로인은 《통일신보》의 정기구독자였다. 그의 말에 의하면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탄생 100돐이 하루하루 다가올에 따라 조국소식을 알고싶어 자기 집을 찾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는것이였다.

우리는 김로인의 부인인 박 스웨파할머니와 리 클림 로인내외를 비롯한 이웃들과도 인사를 나누었다. 자리를 잡하니 화제는 자연히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졌다.

《지금으로부터 100년전에는 나라를 뺏긴것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까지 쫓겨나지 않으면 안되었지요. 나도 그렇고 여기 리 클림도 다 그 불쌍한 수난자들의 후손들이라오.

그런데 오늘은 위대한 주석님과 장군님덕으로 조국은 세상에서 위었고 우리 민족은 제일 강한 민족이 되었지요.》

김로인의 말을 리 클림이 받았다.

《아 그때에야 저기 걸렸이는 사냥총보다 못한 화승대도 없어 조선군사들이 막 쓰러졌는데 지금은 핵보유국의 인공지구위성도 맘먹으면 척 만들어 쏘올리는 그런 강대국이 됐으니 백두산위인들의 그 공적을 우리는 영원히 잊지 말아야지요.》

이야기들이 오가는 가운데 시간이 흐르자 박 스웨파할머니가 조국에서 귀한 손님이 왔는데 이야기판만 퍼놓겠냐며 령감에게 편찬을 주는것이였다.

그리고는 먼저 일어나 치러 매 자기가 가장 좋아하였고 당시 까자흐스탄신문에도 실렸었다는 시 《김일성주석께 드리는 노래》를 읽어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뒤질세라 리 클림로인부부도 우리 노래 《오직 한마음》을 열성껏 불렀는데 그 만에야 후렴부분에서 박자사로 잘 맞지 않아 폭소를 터뜨리기도 했다.

어느덧 우리는 그들과 한집안식구가 되어버렸다.

김로인내외가 평양에 갔을 때 찍은 흑화물도 함께 보고 그 자손들에게 신문도 읽어주며 우리는 유쾌한 시간을 보냈다.

이름날 우리는 알마티시내에 있는 한 동포조직이군들과도 상봉하였다.

인사말에 이어 조국소식을 묻는 그들에게 일일이 대답

할수 있었다.

까자흐스탄경제종합대학에서 강좌장으로 있는 력사학박사 강 게오르기키와 사무실에 어버이수령님과 함께 찍은 기념사진을 정중히 모시고 일하는 기업인 그리고 정금자녀성을 비롯한 평범한 동포들의 마음에서도...

기르기즈스탄 비슈케크행 비행기가 알마티의 대지를 박차다.

세찬 동음속에서도 우리의 귀에는 자기들의 마음은 언제나 조국과 잇닿아있었다.

그의 심금에서 울려나온 뜨거운 진정을 우리는 알마티에 체류하는 기간 만나본 많은 동포들에게서도 력력히

김정은최고령도자에게 드리는 축전을 정중히 받아안았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에 대한 이곳 동포들의 신뢰심이 담겨진 축전을 한사람 한사람 돌려보며 정히 쓰다듬는 우리에게 김 로만책임자는 《몸은 비록 멀리에 있어도 우리 마음은 언제나 조국과 잇닿아있습니다.》고 진정에 넘쳐 말하는것이였다.

그의 심금에서 울려나온 뜨거운 진정을 우리는 알마티에 체류하는 기간 만나본 많은 동포들에게서도 력력히

원할수 있었다.

까자흐스탄경제종합대학에서 강좌장으로 있는 력사학박사 강 게오르기키와 사무실에 어버이수령님과 함께 찍은 기념사진을 정중히 모시고 일하는 기업인 그리고 정금자녀성을 비롯한 평범한 동포들의 마음에서도... 기르기즈스탄 비슈케크행 비행기가 알마티의 대지를 박차다.

세찬 동음속에서도 우리의 귀에는 자기들의 마음은 언제나 조국과 잇닿아있었다.

그의 심금에서 울려나온 뜨거운 진정을 우리는 알마티에 체류하는 기간 만나본 많은 동포들에게서도 력력히

원할수 있었다.

까자흐스탄경제종합대학에서 강좌장으로 있는 력사학박사 강 게오르기키와 사무실에 어버이수령님과 함께 찍은 기념사진을 정중히 모시고 일하는 기업인 그리고 정금자녀성을 비롯한 평범한 동포들의 마음에서도... 기르기즈스탄 비슈케크행 비행기가 알마티의 대지를 박차다.

세찬 동음속에서도 우리의 귀에는 자기들의 마음은 언제나 조국과 잇닿아있었다.

그의 심금에서 울려나온 뜨거운 진정을 우리는 알마티에 체류하는 기간 만나본 많은 동포들에게서도 력력히

원할수 있었다.

까자흐스탄경제종합대학에서 강좌장으로 있는 력사학박사 강 게오르기키와 사무실에 어버이수령님과 함께 찍은 기념사진을 정중히 모시고 일하는 기업인 그리고 정금자녀성을 비롯한 평범한 동포들의 마음에서도... 기르기즈스탄 비슈케크행 비행기가 알마티의 대지를 박차다.

세찬 동음속에서도 우리의 귀에는 자기들의 마음은 언제나 조국과 잇닿아있었다.

그의 심금에서 울려나온 뜨거운 진정을 우리는 알마티에 체류하는 기간 만나본 많은 동포들에게서도 력력히

원할수 있었다.

까자흐스탄경제종합대학에서 강좌장으로 있는 력사학박사 강 게오르기키와 사무실에 어버이수령님과 함께 찍은 기념사진을 정중히 모시고 일하는 기업인 그리고 정금자녀성을 비롯한 평범한 동포들의 마음에서도... 기르기즈스탄 비슈케크행 비행기가 알마티의 대지를 박차다.

세찬 동음속에서도 우리의 귀에는 자기들의 마음은 언제나 조국과 잇닿아있었다.

그의 심금에서 울려나온 뜨거운 진정을 우리는 알마티에 체류하는 기간 만나본 많은 동포들에게서도 력력히



사진전시회장을 찾는 비슈케크에 사는 동포들



뜻깊은 4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진행된 래전도모범출연의 한 장면



조국의 출판물들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알마티에 사는 김 보리스동포의 가정

무릇 신화나 전설은 유년기 인류의 소박한 환상과 리상을 비현실적인 환상의 수법으로 반영한 구전문학의 한 형태로 서 근대이후 현대에 들어와서는 거의나 창조되지 않는것으로 알려졌었다.

그러나 이 지구상에는 날이 갈수록 천출위인들의 위대한 공로를 전설속에 고지높이 전하는 나라가 있고 민족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선군조국, 우리 민족이다.

위인전설이 많은 조국 땅에서 요새는 또 한분의 불세출의 선군령수에 대한 찬양은 전설들이 태어나 사람들을 격동시키고있다.

며칠전에 나는 지금 세인들속에서 《동시다발환각증》이란 낱말이 생겨나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동시다발 환각증》이라니?

이때까지 세계의 그 어느 의학사전이나 교재에도 이런 병명이 올라보지 못했다.

언젠가 미국의 대통령 부부가 악몽같은 9.11사건을 겪고나서 《동시다발 환각증》라는 엉뚱한 말을 들어내어 세상에 내뿜린적이 있지만...

이야기진주 듣고보니 허술히 대할 문제가 아니였다.

주제101(2012)년 정월 초하루 제 바다건너 미국 땅에서 대동령이라는 사람에게서 피이한 환각증이 나타났는데 자다가 문득 깨어나서는 어련에 잠꼬대같은 얼빠진

소리를 쫓는것이 그 시작이라고 한다. 비서요, 전담의 비현실적인 환상의 수법으로 반영한 구전문학의 한 형태로 서 근대이후 현대에 들어와서는 거의나 창조되지 않는것으로 알려졌었다.

그러나 이 지구상에는 날이 갈수록 천출위인들의 위대한 공로를 전설속에 고지높이 전하는 나라가 있고 민족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선군조국, 우리 민족이다.

위인전설이 많은 조국 땅에서 요새는 또 한분의 불세출의 선군령수에 대한 찬양은 전설들이 태어나 사람들을 격동시키고있다.

며칠전에 나는 지금 세인들속에서 《동시다발환각증》이란 낱말이 생겨나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동시다발 환각증》이라니?

이때까지 세계의 그 어느 의학사전이나 교재에도 이런 병명이 올라보지 못했다.

언젠가 미국의 대통령 부부가 악몽같은 9.11사건을 겪고나서 《동시다발 환각증》라는 엉뚱한 말을 들어내어 세상에 내뿜린적이 있지만...

이야기진주 듣고보니 허술히 대할 문제가 아니였다.

주제101(2012)년 정월 초하루 제 바다건너 미국 땅에서 대동령이라는 사람에게서 피이한 환각증이 나타났는데 자다가 문득 깨어나서는 어련에 잠꼬대같은 얼빠진

소리를 쫓는것이 그 시작이라고 한다. 비서요, 전담의 비현실적인 환상의 수법으로 반영한 구전문학의 한 형태로 서 근대이후 현대에 들어와서는 거의나 창조되지 않는것으로 알려졌었다.

그러나 이 지구상에는 날이 갈수록 천출위인들의 위대한 공로를 전설속에 고지높이 전하는 나라가 있고 민족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선군조국, 우리 민족이다.

위인전설이 많은 조국 땅에서 요새는 또 한분의 불세출의 선군령수에 대한 찬양은 전설들이 태어나 사람들을 격동시키고있다.

며칠전에 나는 지금 세인들속에서 《동시다발환각증》이란 낱말이 생겨나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동시다발 환각증》이라니?

이때까지 세계의 그 어느 의학사전이나 교재에도 이런 병명이 올라보지 못했다.

언젠가 미국의 대통령 부부가 악몽같은 9.11사건을 겪고나서 《동시다발 환각증》라는 엉뚱한 말을 들어내어 세상에 내뿜린적이 있지만...

이야기진주 듣고보니 허술히 대할 문제가 아니였다.

주제101(2012)년 정월 초하루 제 바다건너 미국 땅에서 대동령이라는 사람에게서 피이한 환각증이 나타났는데 자다가 문득 깨어나서는 어련에 잠꼬대같은 얼빠진

소리를 쫓는것이 그 시작이라고 한다. 비서요, 전담의 비현실적인 환상의 수법으로 반영한 구전문학의 한 형태로 서 근대이후 현대에 들어와서는 거의나 창조되지 않는것으로 알려졌었다.

그러나 이 지구상에는 날이 갈수록 천출위인들의 위대한 공로를 전설속에 고지높이 전하는 나라가 있고 민족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선군조국, 우리 민족이다.

위인전설이 많은 조국 땅에서 요새는 또 한분의 불세출의 선군령수에 대한 찬양은 전설들이 태어나 사람들을 격동시키고있다.

며칠전에 나는 지금 세인들속에서 《동시다발환각증》이란 낱말이 생겨나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동시다발 환각증》이라니?

이때까지 세계의 그 어느 의학사전이나 교재에도 이런 병명이 올라보지 못했다.

언젠가 미국의 대통령 부부가 악몽같은 9.11사건을 겪고나서 《동시다발 환각증》라는 엉뚱한 말을 들어내어 세상에 내뿜린적이 있지만...

이야기진주 듣고보니 허술히 대할 문제가 아니였다.

주제101(2012)년 정월 초하루 제 바다건너 미국 땅에서 대동령이라는 사람에게서 피이한 환각증이 나타났는데 자다가 문득 깨어나서는 어련에 잠꼬대같은 얼빠진

소리를 쫓는것이 그 시작이라고 한다. 비서요, 전담의 비현실적인 환상의 수법으로 반영한 구전문학의 한 형태로 서 근대이후 현대에 들어와서는 거의나 창조되지 않는것으로 알려졌었다.

그러나 이 지구상에는 날이 갈수록 천출위인들의 위대한 공로를 전설속에 고지높이 전하는 나라가 있고 민족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선군조국, 우리 민족이다.

위인전설이 많은 조국 땅에서 요새는 또 한분의 불세출의 선군령수에 대한 찬양은 전설들이 태어나 사람들을 격동시키고있다.

며칠전에 나는 지금 세인들속에서 《동시다발환각증》이란 낱말이 생겨나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동시다발 환각증》이라니?

이때까지 세계의 그 어느 의학사전이나 교재에도 이런 병명이 올라보지 못했다.

언젠가 미국의 대통령 부부가 악몽같은 9.11사건을 겪고나서 《동시다발 환각증》라는 엉뚱한 말을 들어내어 세상에 내뿜린적이 있지만...

이야기진주 듣고보니 허술히 대할 문제가 아니였다.

주제101(2012)년 정월 초하루 제 바다건너 미국 땅에서 대동령이라는 사람에게서 피이한 환각증이 나타났는데 자다가 문득 깨어나서는 어련에 잠꼬대같은 얼빠진

소리를 쫓는것이 그 시작이라고 한다. 비서요, 전담의 비현실적인 환상의 수법으로 반영한 구전문학의 한 형태로 서 근대이후 현대에 들어와서는 거의나 창조되지 않는것으로 알려졌었다.

그러나 이 지구상에는 날이 갈수록 천출위인들의 위대한 공로를 전설속에 고지높이 전하는 나라가 있고 민족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선군조국, 우리 민족이다.

위인전설이 많은 조국 땅에서 요새는 또 한분의 불세출의 선군령수에 대한 찬양은 전설들이 태어나 사람들을 격동시키고있다.

며칠전에 나는 지금 세인들속에서 《동시다발환각증》이란 낱말이 생겨나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동시다발 환각증》이라니?

이때까지 세계의 그 어느 의학사전이나 교재에도 이런 병명이 올라보지 못했다.

언젠가 미국의 대통령 부부가 악몽같은 9.11사건을 겪고나서 《동시다발 환각증》라는 엉뚱한 말을 들어내어 세상에 내뿜린적이 있지만...

이야기진주 듣고보니 허술히 대할 문제가 아니였다.

주제101(2012)년 정월 초하루 제 바다건너 미국 땅에서 대동령이라는 사람에게서 피이한 환각증이 나타났는데 자다가 문득 깨어나서는 어련에 잠꼬대같은 얼빠진

소리를 쫓는것이 그 시작이라고 한다. 비서요, 전담의 비현실적인 환상의 수법으로 반영한 구전문학의 한 형태로 서 근대이후 현대에 들어와서는 거의나 창조되지 않는것으로 알려졌었다.

그러나 이 지구상에는 날이 갈수록 천출위인들의 위대한 공로를 전설속에 고지높이 전하는 나라가 있고 민족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선군조국, 우리 민족이다.

위인전설이 많은 조국 땅에서 요새는 또 한분의 불세출의 선군령수에 대한 찬양은 전설들이 태어나 사람들을 격동시키고있다.

며칠전에 나는 지금 세인들속에서 《동시다발환각증》이란 낱말이 생겨나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동시다발 환각증》이라니?

이때까지 세계의 그 어느 의학사전이나 교재에도 이런 병명이 올라보지 못했다.

언젠가 미국의 대통령 부부가 악몽같은 9.11사건을 겪고나서 《동시다발 환각증》라는 엉뚱한 말을 들어내어 세상에 내뿜린적이 있지만...

이야기진주 듣고보니 허술히 대할 문제가 아니였다.

주제101(2012)년 정월 초하루 제 바다건너 미국 땅에서 대동령이라는 사람에게서 피이한 환각증이 나타났는데 자다가 문득 깨어나서는 어련에 잠꼬대같은 얼빠진

소리를 쫓는것이 그 시작이라고 한다. 비서요, 전담의 비현실적인 환상의 수법으로 반영한 구전문학의 한 형태로 서 근대이후 현대에 들어와서는 거의나 창조되지 않는것으로 알려졌었다.

그러나 이 지구상에는 날이 갈수록 천출위인들의 위대한 공로를 전설속에 고지높이 전하는 나라가 있고 민족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선군조국, 우리 민족이다.

위인전설이 많은 조국 땅에서 요새는 또 한분의 불세출의 선군령수에 대한 찬양은 전설들이 태어나 사람들을 격동시키고있다.

며칠전에 나는 지금 세인들속에서 《동시다발환각증》이란 낱말이 생겨나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동시다발 환각증》이라니?

이때까지 세계의 그 어느 의학사전이나 교재에도 이런 병명이 올라보지 못했다.

언젠가 미국의 대통령 부부가 악몽같은 9.11사건을 겪고나서 《동시다발 환각증》라는 엉뚱한 말을 들어내어 세상에 내뿜린적이 있지만...

이야기진주 듣고보니 허술히 대할 문제가 아니였다.

주제101(2012)년 정월 초하루 제 바다건너 미국 땅에서 대동령이라는 사람에게서 피이한 환각증이 나타났는데 자다가 문득 깨어나서는 어련에 잠꼬대같은 얼빠진

남포-평양바다물수송관 준공식 진행

남포-평양바다물수송관 이 선군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로 훌륭히 일떠섰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원대한 구상과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의 뜨거운 정성에 건설된 남포-평양바다물수송관은 인민의 복리증진을 조선로동당활동의 최고원칙으로 내세우신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사랑의 결정체이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 탄생 100돐에 드리는 자랑찬 로력적전물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원대한 구상에 따라 선군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로 완공된 남포-평양바다물수송관 준공식

식이 4월 30일 와우도구역에서 진행되었다.

준공사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최영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총리가 하였다.

연설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100돐을 민족최상형태의 명절로 성대히 경축한 감격과 환희가 온 나라에 차넘치고있는 시기에 남포-평양바다물수송관 준공식을 가지게 된다고 말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원대한 구상에 따라 선군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로 완공된 남포-평양바다물수송관 준공식

이것은 물론 전설이다. 하지만 백두산혈통을 이어받은 민족자주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완성시킬 또 한분의 위대한 천출위인을 조선로동당에 높이 모신 대경사속에 새로운 전설을 접하고보니 신심이 넘쳐난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모시여 우리 민족자주위업의 최후승리는 확고히 담보되어있다. 전설이 모여주는 것처럼 위시들, 도교, 서우이 그이앞에 회기를 들고 찾아올 날은 멀지 않다.

김성희

남포-평양바다물수송관 이 선군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로 훌륭히 일떠섰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원대한 구상과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의 뜨거운 정성에 건설된 남포-평양바다물수송관은 인민의 복리증진을 조선로동당활동의 최고원칙으로 내세우신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사랑의 결정체이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 탄생 100돐에 드리는 자랑찬 로력적전물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원대한 구상에 따라 선군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로 완공된 남포-평양바다물수송관 준공식

식이 4월 30일 와우도구역에서 진행되었다.

준공사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최영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총리가 하였다.

연설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100돐을 민족최상형태의 명절로 성대히 경축한 감격과 환희가 온 나라에 차넘치고있는 시기에 남포-평양바다물수송관 준공식을 가지게 된다고 말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원대한 구상에 따라 선군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로 완공된 남포-평양바다물수송관 준공식

이것은 물론 전설이다. 하지만 백두산혈통을 이어받은 민족자주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완성시킬 또 한분의 위대한 천출위인을 조선로동당에 높이 모신 대경사속에 새로운 전설을 접하고보니 신심이 넘쳐난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모시여 우리 민족자주위업의 최후승리는 확고히 담보되어있다. 전설이 모여주는 것처럼 위시들, 도교, 서우이 그이앞에 회기를 들고 찾아올 날은 멀지 않다.

김성희

남포-평양바다물수송관 이 선군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로 훌륭히 일떠섰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원대한 구상과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의 뜨거운 정성에 건설된 남포-평양바다물수송관은 인민의 복리증진을 조선로동당활동의 최고원칙으로 내세우신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사랑의 결정체이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 탄생 100돐에 드리는 자랑찬 로력적전물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원대한 구상에 따라 선군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로 완공된 남포-평양바다물수송관 준공식

식이 4월 30일 와우도구역에서 진행되었다.

준공사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최영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총리가 하였다.

연설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100돐을 민족최상형태의 명절로 성대히 경축한 감격과 환희가 온 나라에 차넘치고있는 시기에 남포-평양바다물수송관 준공식을 가지게 된다고 말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원대한 구상에 따라 선군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로 완공된 남포-평양바다물수송관 준공식

이것은 물론 전설이다. 하지만 백두산혈통을 이어받은 민족자주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완성시킬 또 한분의 위대한 천출위인을 조선로동당에 높이 모신 대경사속에 새로운 전설을 접하고보니 신심이 넘쳐난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모시여 우리 민족자주위업의 최후승리는 확고히 담보되어있다. 전설이 모여주는 것처럼 위시들, 도교, 서우이 그이앞에 회기를 들고 찾아올 날은 멀지 않다.

김성희



남포-평양바다물수송관 준공(전전지)

기자: 조업일은 공화국의 체제를 흔들다 못해 감히 우리의 최고준엄을 모독하는 특대형도발행위를 계속 감행하고있는 리명박쥐새끼무리에 대한 천만군민의 복수심이 활화산처럼 떠오르고있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의 심정도 다름없고있고 생각합니다.

좌담회

만고역적의 무리에게 천백배의 징벌을

참가자

- 최석현: 전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 책임부원
- 조일남: 사회과학원 연구사
- 김한철: 조선인민군 군관
- 사 회: 본사기자

최 석 현: 지나온 북남관계사가 참으로 복잡다단하였고 역대 남조선통치배들중에 사대매국과 동족대결에 매달려온자들도 적지 않지만 리명박과 같은 극악한 민족반역자, 동족대결분자를 려하는 일찌기 알지 못하고있다.

리명박의 지시와 부추김 밑에 지난 기간 남조선에서 《인공기적》사건, 군병영과 초소들, 군사시설물들에 썰물이나 내다건 공화국의 최고준엄을 헐뜯는 《구호 또는 천수막》사건, 사격장들과 훈련장들에 서 벌어진 《최고준엄표적사격》행위와 같은 특대형도발행위가 거의없지 않았었다. 지난해말 청천벽력같은 민족의 대국상에게 피눈물을 뿌리는 동족에게 조의를 표시하지는 못할망정 총부리를 들러대고 그 무슨 《분

리대응》을 떠들며 아픈 가슴을 란도질한 리명박역적배당의 동족대결광기는 올해에 들어와 위험수위를 넘고있다.

리명박배당이 인천시에 주둔하고있는 남조선군부대의 내부반의 벽체와 문짝들에 감히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초상화를 제멋대로 걸어놓고 그 아래에 차마 입에 담지 못할 글까지 써붙이 썰물이나 내다건 공화국의 최고준엄을 헐뜯는 《구호 또는 천수막》사건, 사격장들과 훈련장들에 서 벌어진 《최고준엄표적사격》행위와 같은 특대형도발행위가 거의없지 않았었다. 지난해말 청천벽력같은 민족의 대국상에게 피눈물을 뿌리는 동족에게 조의를 표시하지는 못할망정 총부리를 들러대고 그 무슨 《분

뺨뿐아니라 개인의 자유와 인권도 필요》하다느니, 우리가 핵이나 미사일개발의지를 굽히지 않는다면 《북의 체제변화에 주목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며 《이북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려면 협동농장들을 해체하고 농지개혁을 실시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재하는 소리를 또 다시 쳤다.

이 모든 사실들은 리명박이야말로 한 조각의 인물도덕과 량심도 없는 극악한 동족대결의 광신자이며 초보적인 사고능력조차 갖추지 못한 천하무던한 망랑짓을 벌려놓은것이 불과 얼마전의 일이다.

공화국의 최고준엄을 또 다시 모독한 리명박배당의 특대형도발행위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분노와 복수의 웨침이 채 가지지도 전에 리명박역적이 직접 나서서 공화국의 인공지구위성 발사를 장거리탄도미사일발사라고 악에 끼쳐 헐뜯는가 하면 미사일 한번 쏘는 데 쓴 돈이면 강병이를 얼마 사올 수 있다느니 하는 꾀변을 늘어놓았다. 그것도 모자라 리명박역도는 그 무슨 강연이라는데서 《지금 북에는

한것은 공화국의 최고준엄에 대한 악랄한 중상모독행위이다.

백두산위인들이 어떤분들이신가. 세계지도에서 빛을 잃고 수난의 검은 구름만이 떠돌던 이 나라의 하늘가에 재생의 햇빛을 비쳐주시고 비참하고 처절한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강요당하던 우리 민족을 세상에서 제일 강한 위대한 민족으로 되게 하여주시는분들이 바로 그분들이시라. 하기에 온 겨레는 성스러운 주제100년사를 궁지높이 높이켜보면서 망국노의 눈물겨운 설움을 영원히 가져주신 겨레의 영인이시고 민족의 태양이신 백두산절세위인들을 그토록 모욕하고있다. 이번엔 온 겨레와 전세계의 커다란 환희와 격동속에 거행된 태양절 100대축전은 사대와 망

국으로 수난받던 이 나라에 민족재생의 밝은 서광을 안겨주시고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삶과 행복이 꽃피는 력사의 새 기원을 열어주시는 아버지수령님과 우리 민족의 존엄과 긍지, 슬기를 세계만방에 떨치게 하여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전체 조선민족과 인류의 다함없는 청송과 분출이며 민족의 은인, 절세위인들에 대한 가장 숭고한 경의와 최대의 감사의 표시이다.

억만금으로도 계산할수 없고 그 어떤 자재로도 쥘수 없는 우리 겨레의 열렬한 충정의 세계, 위인홍모의 마음을 무덤하게도 금전으로 너절하게 생질하는 리명박역적무리야말로 참다운 인간세상을 등진 야만의 무리이다.

기자: 하기에 만고역적 리명박쥐새끼무리들에 대한 우

리 군대와 인민의 분노와 복수심이 《깃동개버리라》, 《죽랑쳐버리라》, 《뺏어죽여버리라》는 함성으로 하늘땅을 흔들고있지 않는다.

김 한 철: 민족의 대국상 앞에 만고대역적을 저지르고도 모자라 우리의 최고준엄을 또 다시 모독한 쥐새끼무리들이 살아숨쉬는 곳은 지구상 그 어디에도 없다. 동족대결을 생존방식으로 삼고있는 리명박쥐새끼와 같은것을 그대로 두고서는 북남관계는 고사하고 온 민족이 재앙을 면할수 없다는것이 오늘 우리 군대가 내린 최종결론이다.

얼마전 《국방과학연구소》라는데 나타난 리명박이 볼품없는 몇기의 미사일을 아무런 지시도 없이 신성난 우리 공화국의 그 어스곳이나 《죽라 죽라》할수 있는 정밀성과 위력을 가지고있다고 희뽀개 떠벌렸는가 하면 감히 《집무실창문을 통한 최고수뇌부타격설》까지 무덤하게 내뉘리는 극히 엄청난 도발광기를 부리

었다. 역도는 4월 30일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것을 청와대에 불러놓고 대결광기를 부리다 못해 《북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서라도 강한 대응을 할것》이니 뭐니 하는 악담을 또다시 내뉘었다.

이것은 막다른 골목에 몰린 쥐가 상대방을 필사적으로 물듯이 우리의 단호한 징벌기세에 빠져나갈 구멍이 없게 된 역적배당이 덮어놓고 북을 물어뜯으려는 단말마적인 발악이라 해야 할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닭알로 바위를 치겠다는 어리석은 발상이고 《체제대결》망상에 사로잡힌 정신병자의 망동여 지나지 않는다.

우리의 단호하고 강한 징벌앞에 역적배당은 《대응조치》는커녕 앉은자리에서 목숨살이 되고야말것이다.

무덤하게도 하늘의 태양에다 대고 샅대질을 해대는 쥐명박무리를 최후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것인가를 이제 몸서리치며 감수하게 될것이다.

더러운 쥐새끼꼬리에 매여 달려 뺨부스거리거나 얻어먹으며 무덤하게 란동질을 입삼는 늑대리반동들과 인간오작품인 강대대학생들, 극우보수언론들도 자비를 모르는 백두산총대의 피나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

빈말을 모르는 우리 군대는 이미 통고한대로 한순간에 지금까지 입어본적이 없는 특이한 수단과 우리 식의 방법으로도 모든 쥐새끼무리들과 도발근원들을 붙이 번쩍과 초토화해버리게 될것이다. 우리의 최고준엄을 사수하기 위한 천만군민의 복수의 성전에서 살아남을 쥐새끼는 한마리도 없다.

최석현: 리명박역적배당은 푹푹히 알아야 한다. 태양절정축행사를 통해 파시던 우리 공화국의 위상과 국력, 특히 일일단결과 무진막강한 군력에서 개꿈같은 《체제통일》, 《홍수통일》망상들이 산산조각이 나게 된다는것을.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 온 겨레는 쥐구멍에 들어박혀 감히 하늘의 태양에 샅대질하며 쏠라대는 리명박쥐새끼와 그 배당을 가장 비참하게, 가장 수치스럽게 죽랑쳐버리고야말것이다.

분노의 함성은 매일같이

분노한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의 함성이 하늘땅을 뒤흔들고있다.

리명박쥐새끼무리를 《깃동개버리라》, 《죽랑쳐버리자》, 《뺏어죽여라》는 복수의 웨침이 가는 곳마다에서 울러나오고있다.

하늘에 대고 감히 샅대질을 하는자들은 그가 누구든 천벌을 면치 못할것이라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성명이 나온 이후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 성명,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보도,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대변인담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부성 대변인성명 등이 련이어 발표되어 역적배당의 특대형도발광기를 천백배로 복수하고야말 천만군대와 인민의 의지를 내외에 엄숙히 천명하였다.

태양절 100돐을 맞으며 절세의 백두산위인들의 손길아래 자라난 무진막강한 철의 대오가 장엄하게 흐르던 김일성광장에서 우리의 최고준엄을 모독중상한 불구

대천의 원수인 리명박쥐새끼무리들을 죽랑쳐버리기 위한 평양시군민대회가 진행된것을 시작으로 하여 각 도, 시(구역), 군들에서 군민대회들이 열리고있으며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들의 복수결의대회, 인민군대 복대 및 입대환원모임들이 끊이지 않고 진행되고있다.

이뿐이 아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성명이 전해진 직후 판문점으로 향한 개성시의 도로에는 전이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들었다. 청년학생들의 로동자들과 개성시민들, 빨래들과 시찰을 든 너인들, 그따위 생쥐새끼야 한주먹이면 알아볼것이라고 욕육대는 로동자들과 청년들... 삼시에 도로를 인파로 꽉 막혀버리고 여기에 자동차행렬까지 합세하였다. 격식없는 시위행진이 진행되었다.

《명박이를 때려죽이자!》, 《이 길로 서올까지!》... 어느 한 광산에서는 광부들이 《리명박쥐새끼무리》라는 글자가 쓰여진 인형들을 쇠줄로 한데 끼여 광차

에 매여 끌고다니고 중학교와 대학의 교정들에서는 청년학생들이 쥐명박을 형상한 인형들에 달려들어 저저마다 발로 차고 침을 뱉고 하다가 단두대에 매달아 화형사를 하는 소식들이 련일 전해지고있다. 조선인민군, 로동적위군, 젊은청년군위대 대원들이 역적배당의 도발행위를 단숨에 불바다로 만들어버리고 쥐새끼무리들이 다시는 쏠라다질을 못하게 죽랑쳐버릴 결사의 맹세를 다지면서 농들을 형상한 인형들에 복수의 총탄을 퍼붓거나 철의 무한케도르 가져왔던 것들에게는 모슴들도 지면과 TV화면으로 계속 보도되고있다.

민족의 운명이고 생명이며 미래인 최고준엄을 건드린 쥐새끼무리들에 대한 공화국 군대와 인민의 분노가 어느 정도에까지 이르렀는가 하는것은 《우리 혁명무력의 특별행동이 곧 개시된다.》는것을 알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특별자전행동소조의 통고를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통고장이 발표된 후 해외 이 포도청이기때문이다. 그들에게 물어보니 한번 시위에 나가면 최고 10만원, 최하 3만원정도를 받는다고 한다. 술 한잔, 밥 한끼 얻어

동포들과 외국인들은 민족의 대국상으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러차례에 걸친 리명박역적배당의 특대형도발행위들에 대해 경고도 하고 경고도 하였지만 이번처럼 군사적행동을 내로한 특별행동의 수단과 방법, 그 대상에 이르기까지 정식 통고한것은 일찌기 없었다고 평하였다.

리명박무리들은 통고장에서 경고한 대상건물들에 경찰부력을 투입한다. 보안을 강화한다 하며 무서워 벌벌 떨고있다. 조선인민군 창건 80돐을 맞은 4월 25일 이후 3시 공화국에서 《특별방송》을 예고하자 기다리던 특별행동의 시각이 닥쳐왔다라고 하면서 리명박역도자 긴급 《주공화국》을 소집하는 등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이 시간에 공화국은 조선인민군창건 80돐 경축 중앙보고대회를 내보내었다.

공화국은 결코 빈말을 모르며 최고준엄을 감히 건드린 리명박쥐새끼배당을 이 땅, 이 하늘아래에서 싸도 없이 깨야 할 썰물때까지 천만군대와 인민의 복수의 성전은 계속 될것이다.

본사기자 박근일

막다른 골목에 이른 쥐새끼가 고양이에게 덤벼드는것을 보신적이 있으신지? 있다면 그렇다. 쥐새끼가 고양이에게 덤벼드는것은 보았습니까? 못 보았지요.

그러나 그렇다. 고양이한테 덤벼든 풍수 없는 쥐새끼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쥐인가구요?

남조선인민들이 《위박》이라고 손가락질하는 리명박 그놈입니다.

생김새가 꼭 쥐상통인데다 청와대구석에서 싸부랑대는것도 모자라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쏠라다질하는 그 쥐바닥이 꼭 우와의 새양귀죽대도입니다.

본적지는 일본 오사카, 조선말보다 영어를 더 좋아하는 일간지인데다 지능지수는 2MB밖에 안되는 천치, 자기 민족보다 미국이나 일본을 섬기는것으로 명을 부지하는 완전 잡종생쥐입니다.

우 위박이가 요즘 죽지 못해 안달입니다.

민심의 저주는 받지, 자리는 부지해야겠지, 상전의 비위를 맞추어야지... 그래서 북을 걸고들며 쏠라다질하는데 아마 공화국을 잡자는 고양이로 착각한 모양입니다.

《체제변화》니, 《농지개혁》이니 하는 잡교대같은 꾀변을 짹짹 늘어놓더니 《최고수뇌부타격설》까지 내뉘었습니다.

저 혼자라면 또 몰라라 저와 같은 늑대리들과 손주벌되는 녀석들을 부추겨 공화국의 최고준엄을 헐뜯게 하고 거기에 어용나팔수들까지 동원시켰습니다.

입이란 생각을 묻어두는 인체기관이지 혀바닥 돌아

가내대로 말을 뱉어놓는 구멍이 아닙니다.

새끼 혀바닥이 진골을 감는다고 경우없이 나불거리면 입이라 하지 않고 주둥이라 욕하고 악을 풀고 너덜대면 아가리를 닦자라고 합니다.

그때도 집권자라면 한번 입을 열기 전에 열변 생각을 굴러야겠는데 풍수도, 주책도 없이, 때와 장소에 가림없이 게거품물고 나발을 불어대는 위박이의 그 구멍을 쥐라고 불려야 하는지는 말하지 않아도 알것입니다. 입을 닫고 눈은 벌리고 그랬는데 위박이는 그 반대입니다.

당장 변해야 하는것은 위박이때문에 썩고 문드려

《최고수뇌부타격설》? 지금까지 북을 타격하겠다는 수많은 침략전쟁계획이 있었고 조선반도가 전쟁점경까지 간적이 한두번이 아니지만 감히 누구도 공화국의 풀 한포기, 돌 하나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공화국의 막강한 군사력도 그렇지만 수뇌부의 두리에 천만심장이 굳게 뭉쳐서 벽을 이룬 일일단결이 더욱 두렵기때문입니다.

한때 군사물결엔 완전속맥이고 정치는 낫 놓고 기옥자도 모르는 위박이가 주제넘게 《체제변화》를 훈시할하더니 어벌이 없이 《최고수뇌부타격설》을... 참 개구리도 박장대소하도 요절할 일입니다.

야 괜히 말이나 더러워질까 봐서인지 물릴까봐 우려해서가 아닙니다. 대포로 참새를 잡는다면 웃을지 몰라도 이런 그렇게 해서라도 위박이를 없애야 할 판입니다. 그렇게 해야 속이 후련할 우리 민족입니다.

북과 남이 마련한 우리 민족끼리의 고귀한 재산을 다 값아먹은 쥐, 《비핵, 개방, 3 000》, 《홍수통일》, 《체제변화》 등 악성비루스만 퍼뜨리는 쥐, 《주적》, 《인권》 등을 씨부랑대다 못해 공화국의 최고준엄을 모독하고 헐뜯어보려는 미친 위박이.

민족에게 해만 끼치는 위박이를 죽랑치던, 불태워버리던 빨리 처치해야지 한시라도 지체한다면 그 후로는 엄청날것입니다.

일본에서 뼈어졌다 2MB짜리 위박이놈 삼천리를 더럽히려다 사치관에 빠졌구나 오망스레 샷대질하니 육시레도 시원찮다 칠삭둥이 청청 묶어 팔대 지옥에 보내주마 구사일생 바라지마 시원하게 쳐죽이자

이것은 그대로 온 민족의 분노의 분출입니다. 위박이가 어느 구멍에 틀어박힌 민족의 징벌은 무덤속까지 따라갈것입니다. 이미 백두산호랑이는 위박이에게 사형통고를 내렸습니다.

쥐바닥을 비릇한 쥐새끼무리들과 도발근원들을 붙이 번쩍과 초토화할것입니다. 갖은 악행을 저지른 위박이의 피할수 없는 운명입니다.

김정혁

불쌍하기 그지없는 천치, 바보들

남조선에서 태양절정축행사를 악랄하게 헐뜯으며 민족의 최고준엄을 중상모독한 역적배당들중에는 《어버이런함》이라는 간판을 단 늑대리들도 있었다. 북남관계를 간쟁거리며 돌아간 이러한 망동들에 대해서 남조선 각계는 분노와 조소의 목소리들을 련이어 터치고있다.

서울에 사는 김수일(36살)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어버이런함》이라는 것은 한갓 로망은 늑은이들의 집합체이다. 미국의 CIA와 보수팔통들이 술 사주고 밥 사주어 시위에 내보

는 오합지졸에 불과하다. 거기 나가는 로인들의 자식을 전부가 비정규직이고 실업자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령은 로인들이 미국과 보수팔통들의 지령하에 미친 것만 플라하는것은 목구멍

이때때때로 결국 그 자식들도 피해를 보고 사회의 모두가 전쟁공포중에 시달리고있는것이다. 몇푼의 돈에 환장하여 인간의 존엄과 량심을 팔아먹고 란동짓을 일삼는 저따위 늑은이들을 과연 누가 바로보고 대접하겠는가. 북이 그렇게도 철천지원수인가. 때려죽일것은 우리의 밥그릇뿐아니라 목숨까지도 걸것으로 나아가려는 바로 리명박 그놈이다.》

본사기자



역적배들이 대결과 전쟁이 정 소원이라면 우리는 도발자들에게 선군의 불맛을 톡톡히 보여줄 것이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보도 제997호

지난 4월 30일 리명박역도가 청와대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어중이떠중이들을 모아놓고 우리를 또다시 걸고드는 망발을 채쳐왔다. 역도는 가소롭게도 저들이 마치 힘이 있는듯이 허세를 부리며서 북의 어떤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떠벌였는가 하면 《무력경쟁을 원하지 않으며 평화로운 경쟁을 해야 한다.》는 회피어 수작질도 늘어놓았다.

그런가하면 그 무슨 《변화의 바람》이니, 《역사의 흐름》이니 하며 체제대결의 잠꼬대같은 망상을 또다시 드러내놓았다.

리명박역도의 이번 악담질은 우리의 최고준엄을 감히 함부로 건드렸다가 우리 군대와 인민의 무서운 기성과 분노로 죽량이 되게 얻

어맞은 제놈의 체면을 세우고 불안과 공포에 떠는 제 족속들을 달래며 긴장격화의 책임을 모면하고 여론을 오도하기 위한 가소로운 망발이다.

또한 망해가는 제 집안을 수습하고 파산된 동족대결정책에 계속 매달리는 것으로 제놈의 명을 이어보려는 최후발악에 불과하다.

미국에 자주권을 송두리채 빼앗긴 투동식민지주이고 미제상전에 전적으로 얽매인 고용군을 가지고 그 무슨 힘자랑하는 꼴이야말로 차마 눈뜨고 볼수 없는 희비극이다.

더우기 역도가 무력경쟁이 아니라 평화로운 경쟁을 하자니 뭐니 하는것은 그야말로 정신착란중에 걸린 병자의 망동에 지나지 않는다.

조선반도에 핵무기를 끌어들이는 주범이 누구이고 각종 최신전장장비들을 대대적으로 반입하여 남조선을 세계최대의 핵화약고로 전변시킨 장본인은 누구이며 우리의 력대 평화제안들을 모두 외면하고 대결과 전쟁책동으로 대담해나선자는 또 누구인가.

미제침략군의 남조선강점을 에걸하고 미국과 함께 매일같이 무력증강과 전쟁연습에 미쳐달랠라 못해 무업하게도 우리의 최고준엄까지 중상모독하는 특대형도발책동에 매달리는 괴뢰패당은 《평화로운 경쟁》에 대해 말할 체면도 자격도 없다.

역도가 떠는 《변화》에 대해 말한다 해도 그 대상은 다름아닌 남조선이다.

남조선에서는 세상을 바꾸어야 한다는 절규의 목소리

가 하늘에 닿고있다. 오죽했으면 다음기 집권을 노리는 《유신》독재자의 딸까지 리명박 《정권》과의 차별화를 내들며 《변화》와 《쇄신》을 떠들고있겠는가.

리명박역도는 동족대결에 미칠대로 미쳐 주변에 대한 감각도 모르고 당장 틀이닥칠 참변조차 분별하지 못하는 정신병자가 아니면 저를 아가 분명하다.

얼마전에는 부끄러운줄 모르고 친미의 대가로 미국국연설에서 박수를 받았다고 자랑을 하여 내외의 조소거리가 되었는가 하면 남조선을 민생불모지로 만들어놓고도 《죽적》이 높아졌다고 지껄어대고 체제대결에 미쳐 그 무슨 《통일합아리》에 월급을 타서 넣겠다고 하여 사람들을 웃긴것도 바로

리명박역도이다. 리명박역도가 안팎으로 고립되고 얻어맞아 만신창이된 주제에 또다시 대결잡소리를 늘어놓은것은 죽어서도 제 버릇 못 고친다는 격언 그대로이다.

역도의 편이은 악담과 그 족속들의 광란적인 모략대결소동은 조선반도정세를 긴장시키는 도발자가 누구인가를 똑똑히 보여준다.

역적배들이 대결과 전쟁이 정 소원이라면 우리는 도발자들에게 선군의 불맛을 톡톡히 보여줄것이다.

불행의 화근은 하루빨리 쓸어버려야 한다.

리명박역적패당은 우리가 특별행동조치를 선포한 상태에 있다는것을 바로 알고 처신해야 할것이다.

주제101(2012)년 5월 3일 평 양

죽 어 가 면 서 도 물 어 뜰 는 쥐

머칠전 리명박이 청와대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어중이떠중이들을 불러다놓고 《북의 어떤 도발도 용납치 않는 강한 대응이 있을것》이라느니 뭐니 하는 회피어 소리를 또다시 늘어놓았다.

민족앞에 지은 셋을수 없는 죄악으로 하여 안팎으로 얻어맞아 만신창이된 역도가 또다시 잡소리를 늘어놓은 것을 보면 죽어서도 악담질을 일삼는 그 개버릇을 고치질 없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리명박이 기고만장하여 저들이 《비교가 되지 않는 비교우위적함을 가지고있다.》느니 뭐니 하고 줄게들앞에서 짓어댄 이 나발이야말로 저승의 문턱을 밟고있는 정신병자의 히스테리증상이 아닐수 없다.

지금 공화국의 천만군민은 민족의 최고준엄을 감히 중상모독하고 태양절 경축행사를 내걸한 금전계산으로 우물하는 천주에 용납 못할 대죄를 저지른 리명박역적패당과 도발근원들을 지금까지 있어본적이 없는 특이한 수단과 우리 식의 방법으로 불이 번쩍나게 초토화해버리려는 멸적의 의지로 가슴 불태우고있다.

이 정의의 보복성전에 의해 몇 초만에 지옥으로 끌려들어지게 될 가련한 처지에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입이 있다고 《강한 대응》을 너덜대는 리명박의 광기야말로 2MB밖에 안되는 그의 지능지수를 여실히 증명해주고있다.

리명박이 정신이 돌아도 단단히 들었다는것은 그가 두서없이 내뱉은 망발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알수 있다.

이날 역도는 흥면지같이 《북과 평화로운 경쟁을 해야 한다.》느니, 북이 누구의 변화를 받아야 한다느니 하는 동이 달지 않는 소리도 늘어놓았

다. 파리보다 못한 목숨이 경각에 달린 오늘까지도 동족대결에 미쳐 주변갑각과 당장 틀이닥칠 참변조차 분별하지 못하고있는 리명박의 몰골이야말로 꼴불견이라 해야 할것이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지 리명박은 《새로운 바람이 오고있다.》느니, 《새로운 변화를 준비해야 한다.》느니 하는 수작질로 망상에 불과한 저들의 《흡수통일》, 《체제통일》야망이 당장 실현될 기회가 온것처럼 너스레를 떨다 못해 《(한) 반도 7500만의 우리 국민》이니 뭐니 하는 낯도깨비같은 꾀만까지 늘어놓았다.

온 겨레의 규탄배격속에 넘마조각으로 된지도 오랜 《대북정책》에 아직까지 미련을 품고 어떻게 하나 공화국의 체제를 뒤집어엎을 흥심으로 이를 갈다 못해 마치 《흡수통일》이 다 된것처럼 《국민》을 운운하는 리명박의 망동이야말로 정신분열증환자의 말기증상인것이다.

리명박역도의 편이은 악담과 그 족속들의 광란적인 모략대결소동은 조선반도정세를 긴장시키는 도발자가 누구인가를 만천하에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리명박은 알아야 한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태양을 가리울수 없는것처럼 쥐새끼의 몰골을 하고 개나발이나 짓어대는것으로는 활화산처럼 타오르는 민족의 저주와 분노를 막을수 없으며 오히려 파멸의 그날을 앞당겨올뿐이라는것을.

불행의 화근은 하루빨리 쓸어버려야 한다. 역적패당은 공화국의 군대가 이미 특별행동조치를 선포한 상태에 있다는것을 똑바로 명심하고 처신을 바로 해야 한다.

정 학 준

《미친 소 너 나 먹 어》, 《오늘을 시작으로 다시 초불을 들자》

남조선에서 미국산 미친소고기수입을 반대하는 대규모 초불집회가 열린지 만 4년째 되는 5월 2일 저녁 서울의 청계광장에서는 다시 초불이 타올랐다. 청계광장에 모인 1만여명의 각계층 시민들은 《광우병소고기의 수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정부》에 요구하였다.

집회에는 시민사회단체들과 정당, 문성군을 비롯한 야당인사들이 각계층 시민들과 함께 참가하였다.

집회에서 연설자들은 최근 미국에서 광우병에 걸

린 소가 발견되었는데도 현 《정부》가 4년전 《약속》대로 수입중단조치를 취하지 않고 미국소가 안전하다고 떠들며 계속 수입하고있는데 대해 격분에 넘쳐 단죄하면서 미국산 소고기수입을 당장 중지할것을 요구하였다.

한 시민은 당시 미국과의 《협상》대표였던 김종

훈 19대 《국회》의원당선자가 《4년전 일이라 수입중단광고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한 일을 꼬집으며 《광우병에 걸린것 아니냐.》고 비꼬았다.

2008년에도 초불집회에 참가했던 한 여성은 《2008년에 그랬던것처럼 이번 초불도 광우병소고기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지키는 더 큰 초

불로 타올라야 할것》이라고 열변을 토하였다.

이밖에도 시민들은 반값 등록금문제, 제주해군기지건설, 쌍용자동차해고자와 비정규직문제 등 사회의 첨예한 문제들을 지적하며 《리명박을 당장 구속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날 대결과 경상남도 창원을 비롯한 남조선의 곳곳

에서도 미국산 미친소고기를 계속 끌어들이는 친미굴종 《정부》를 규탄하는 초불문화제들이 벌어졌다.

집회장에서는 《대통령은 있는데 국민은 없는 나라... 초불로 심판해야》, 《리명박 (정부)는 반성 은커녕 개변을 통해 국민을 속이고있다.》, 《오늘을 시작으로 다시 초불을 들자.》, 《(한) 우가 최 고다. 미친소 너 나 먹 어.》라는 분노의 웨침이 끊이지 울려나왔다.

본사기자

당 국 의 기 만 행 위 를 단 죄

남조선 《MBC》방송에 의하면 남조선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1일 기자회견을 가지고 미국산 미친소고기를 계속 끌어들이려는 당국을 규탄하

었다. 단체는 《정부》가 4년전 미국에서 미친소병이 발생하 는 경우 미국산 소고기수입을 중단하겠다고 하고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

난하였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 미친 소고기수입을 당장 중지해야 한다고 단체는 강조하 였다. 본사기자



남조선에서 리명박이 집권 하여 인민들과 한 《약속》은 해아릴수 없이 많다. 경제를 살려 시민생활을 돌보겠다느니, 반값등록금 문제를 해결하여 대학생들의 고충을 풀어주겠다느니, 부정부패를 근절하여 《가장 깨끗한 (정부)로 되겠다.》느니 등...

그러나 그것은 한갓 민심 기만에 불과한것으로서 퇴임을 앞둔 오늘까지 지켜진것은 하나도 없다. 그중에는 미국산 소고기문제를 해결하여 인민들의 건강권을 회복하겠다는 달콤한 《약속》도 있다.

최근 리명박역도가 미국산 소고기문제와 관련한 《약속》마저 헌신짝처럼 내던지며 그렇지 않아도 건들거리던 그의 목숨이 더욱 위태롭게 되고있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얼마전 미국에서는 6년만에 광우병이 재발하였다. 일반적으로 국제무대에서는 수출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광우병이 발생하지 않은 수입국에서 수입을 중단하는것이 하나의 판례로 되고있다.

이것이 바로 서민을 위한것이다 리명박 《정부》가 하는 것이다.

는 손실이 대단히 크다. 이로부터 미국은 지금 이번 광우병에 걸린 소가 발견된것과 관련하여 《광우병 걸린 소는 수출하지 않아 전혀 문제될것이 없다.》느니 뭐니 하며 저들의 소고기수출이 아무 영향도 없는듯이 세계 여론을 기만하며 수출을 계속 강행하고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와 타이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들

상전의 리익을 위해서는 인민들의 생명까지 서슴없이 해치려는 리명박 《정권》의 천미사대매국행위는 두고 두고 용서받을수 없는 죄악이 아닐수 없다.

원래 리명박 《정권》은 지금으로부터 4년전인 2008년 미국의 강요로 미국산 소고기수입제한조치를 모두 해제하였다가 성난 민심의 초불시위로 단단히 두들겨맞았

커다란 분노와 규탄을 자아내고있다. 지난 5월 2일 서울과 부산, 대전, 울산, 광주 등 남조선의 주요도시들에서 남녀로소모두가 떨쳐나 《국민이 옳았다》, 《리명박이 틀렸다》, 《광우병위험 미국산 소고기 즉시 수입을 중단하라》는 구호를 웨치며 초불시위를 대대적으로 벌인것은 그 하나의 실례이다.

날로 거세차게 타오르는 초불시위가 4년전의 그때처럼 거죽적인 반 《정부》투쟁으로 이어지는데 절집한 리명박역도가 《광우병인관합동조사단》을 미국에 파견하고 대책을 세운다고 분주랑을 꾸미지만 그것은 금한 모퉁이를 모면해보자는 한갓 어리석은 술책에 불과하다.

한번 약속을 배반한자는 약속을 계속 배반하는 법이다.

지금까지 속혀 살아온 남조선인민들은 더이상 리명박역도의 앞은 술수에 속지 않을것이다.

남조선인민들은 자기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도 하루빨리 리명박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

본사기자 김 음 절

개 보 다 못 한 쥐 명 박

고 영 복

개보다 더 추한 쥐명박	배를 갈라 죽량쳐도 씨원치 않음	남조선 화악내를 좋아하는 쥐명박
내 사는 이 땅에 왜 태어났나	리명박 더러운 쥐새끼	그 매한 연기속에 네가 질식되리라
대대로 태를 물어온 조상의 이 땅에	새들도 같듯 없어 우는 남조선	인간의 탈을 쓴 쥐새끼 불한당
하루도 변질날 없이 전쟁불기를 몰아	전쟁총포성 실세 없이 울부짖는	해빛 한점없는 지하독감방에
은 쥐새끼		가두어
		웅이나무 박살내듯 패고 또 패여
		쥐명박, 너를 저승에 보내리라

헌신짝처럼 휘버린 《약속》

에서는 자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국제판례를 들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고있다.

그러나 리명박연역 《정권》은 이에 반하게 행동하고있다.

지금 리명박소수집권세력은 미국상전의 말만 되풀이 하면서 《국민건강에는 이상이 없다.》고 여론을 기만하며 위험물질이 많은 미국산 소고기수입을 계속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서민을 위한것이다 리명박 《정부》가 하는 것이다.

약 취 품 기 는 오 물 통

지금 남조선에서는 이른바 《탈북자》라 불리우는 인간쓰레기들이 보수당국의 배후조종밑에 반북대결모략소동을 도처에서 악랄하게 벌이고있다.

이자들은 그 무슨 인터뷰요, 간담회요 하는데 경제적으로 나서서 학력위조, 리력기만으로 일관된 장광설을 늘어놓으며 공화국의 체제에 대한 비방에 열을 올리는가 하면 갖은 허위와 악담만이 가득한 대북비라살포행위에도 게거품을 물고 참가하고있다.

리명박과 박근혜를 비롯하여 《흡수통일》야망에 들뜬 미치광이들은 이 어중이

머중이들이 《자유세계를 찾아온 영웅》으로 추켜올리고 《국회》의원으로까지 내세우며 그것들의 갈겅겅을 비호조장하고있으며 열에 들떠 제쳐대는 그것들의 헛나발이 마치도 공화국의 실상인듯이 여론을 기만하고있다.

그러나 남조선보수세력들이 그처럼 기고해도 반복 돌격대로 써먹는 이자들은 말그대로 인간쓰레기들에 불과하다.

그것은 이들의 공화국에서의 생활경위가 잘 말해주고 있다.

함경북도 온성에서 살다가 도주한 토치현이란자의 경우도 그렇다.

그는 술과 여자에 미쳐돌아다니다가 가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여기저기 아는 사람들의 돈을 꾸다 못해 국가기관의 물자를 빼내다가 적발되어 법적제재를 받았던 인물이다.

남조선보수패당이 공화국의 실상인듯이 내세우는자들은 신통히도 이자들과 같이 일하기 싫어하고 도덕적으로 저렬하며 강도, 강간, 도적질만을 일삼다가 사회의 눈초리, 법의 추적을 피해 남으로 도망간 쓰레기들에 불과하다.

지금 남조선에는 돈이 없어 배움의 길을 포기하고 일 자리가 없어 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이다. 그런데 장학금까지 주면서 공부시키고 각자의 능력과 취미에 따라 마음껏 공부할수 있는 공화국의 제도를 퍼져 품을 팔고 혈투는 이리저를 돌린 랑시광 리성을 가진 온전한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도 이런 인간쓰레기들을 끌어모아들이고 지어 《국회》의원으로써 내세우는것을 보면 남조선이 어떤 사회인가 하는것을 적라라하게 알수 있다.

초록은 동성이라고 그 인간쓰레기에 그 오물통인것이다.

본사기자 최 명 제